

# “살맛나는 으뜸해남 건설에 힘 보태겠다”

●손명도 제34대 해남부군수 취임

### SNS에 전입축하금 등 인구유입 시책 홍보 지역사랑 실천 “기회발전특구 지정·해양레저관광 기반 구축 적극 뒷받침”

“힘찬 도약 살맛나는 으뜸 해남 건설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는 명현관 군수를 뒷받침해 더 큰 해남의 미래를 구상하고 장기 발전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데 속도를 높여겠습니다.”

손명도(사진) 제34대 해남부군수가 최근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손 부군수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시대에 직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부임과 동시에 해남군으로 주소를 옮기고 전입축하금(지역사랑상품권 5만원), 1년간 공영관람료와 지하주차장,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등 해남군 인구유입 시책을 SNS에 게재하는 등 남다른 해남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손 부군수는 “해남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해남형 ESG 윤리경영을 군정 전 분야에 도입,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6년 연속 달성하는 등 신뢰받고 일 잘하는 군정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며 “해남의 미래는 더 이상 땅끝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 유라시아의 시작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히 꿈을 펼쳐 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손 부군수는 이어 “해남의 미래 먹거리가 될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2030 프로젝트의 일부로 해남의 20년, 30년을 좌우할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해남군이 전남도, 영암군과 함께 솔라시도 기업도시 3개 지구(구성·삼포·삼호)와



영암호를 연계하는 해양레저관광 기반 구축을 통해 영암호 일대를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남=박필용 기자



##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 ‘냉방용품 나눔’ 행사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는 15일 “초복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의 무더위 예방을 위해 센터에서 광주 동구새마을회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냉방용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냉기나눔 캠페인 일환으로 혹서기 불볕더위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무더위 예방을 위해 선풍기 120대(970만원 상당)를 관내 13개 동 결선 가정 및 독거 어르신세대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무더위로 고생하실 동구 주민들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영 광주 동구새마을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에 더 많은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권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장은 “냉방용품 나눔 행사가 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이웃들이 시원한 여름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무더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릴레이 사랑’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정 기자



## 광주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입주인 삼계탕 전달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우산빛어울체 임대주택 입주인을 대상으로 삼계탕 전달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복을 맞아 폭염과 장마로 지친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건강 기원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도시공사 임직원이 직접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1천150세대에 삼계탕과 간식 꾸러미를 전달하며 입주인의 건강 상태와 주거환경 등 안부를 살폈다.

배운식 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수희 기자

## 목포 낙원교회, 초복 맞이 어르신 전복죽 나눔

목포 낙원교회는 “초복을 맞아 최근 관내 어르신 200여명을 초청해 ‘초복맞이 전복죽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목포 낙원교회 주최로 전복죽과 밀반찬을 대접했다.

용당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수박과 식전공연을 지원했으며 세마를 부녀회도 배식봉사를 지원하며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최요한 목포 낙원교회 담임목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성도들과 함께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애란 용당2동장은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전남도, 적극행정 실적 우수 ‘행안부장관상’

전남도가 행정안전부의 283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적극행정 실적 평가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종합평가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으로 부터 추진계획 수립, 활성화 노력도, 이행 성과, 제감도, 마일리지 시범 운영 등 5대 항목 평가 지표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적극행정 종합 실행 계획에 면책보호관 운영,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우수 공무원 근영가점, 국외연수 혜택 등 과격적 인센티브 신설

을 포함해 추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받았다. 또 김지수 주무관이 ‘전국 최초, 공익직불금무형제 운영을 통한 직불금 감액 최소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개인 부문 장관상 수상의 영예도 안았다.

김중기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장은 “이번 수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에서 공직자와 도민이 소통·협력해 선제 노력한 결과”라며 “우수 사례 발굴, 성과에 대한 보상 등 적극 행정이 공직문화에 확산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 전남·경북개발공사, 2년 연속 ‘고향사랑 상호 기부’

전남개발공사와 경북개발공사가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를 통해 상생발전을 다졌다.

15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날 양 기관이 NH농협은행 전남영남부와 경북지역본부를 각각 방문해 500만원을 서로 기부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응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 번째인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양 개발공사 노동조합도 적극 동참해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1만원 미만의 지폐나 동전을 모아 마련한 ‘끝없는 모금’으로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장종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남과 경북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하고 활성화되는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 담양문화원-함양문화원, 지방문화 발전 ‘맞손’

담양문화원은 “최근 경남 함양문화원과 함양문화원공연장에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문화원은 협약을 통해 두 지역의 문화 향유와 문화정보를 바탕으로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상호 공동 번영을 통해 새로운 지방문화 창달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강성남 담양문화원장은 “협약을 계기로 담양·함양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지역 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



길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광주교통공사 ‘재난관리’ 최우수



광주교통공사가 전국 철도 기관 중 재난관리 역량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교통공사(사장 조익문·사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32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중앙·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이 결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재난관리 정책 추진, 재난상황 관리 대응체계 등에서 최고 성적을 받았다. 특히 재난 안전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와 역량, 시책 추진 실적 분야에서 두드러진 결과를 받으며 지난해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관에 이어 2024년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관련, 조익문 공사 사장은 “어떠한 재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 LG화학 여수공장 ‘날아라 희망공’ 활동

LG화학 여수공장은 “최근 (사)여수YWCA(회장 박은경)와 함께 지역의 생태계 정화를 위해 청소년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날아라 희망공(EM박테리아 휴공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EM박테리아 휴공’은 유용한 미생물군 발효액과 황토를 반죽해 발효시킨 공으로, 강이나 하천에 투입되면 서서히 녹으면서 수질이 정화되고 녹조 및 악취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 강과 하천의 생태계가 회복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공기를 맑게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만들어진 1천개의 휴공은 오는 27일 여수 선소 유적지 부근 해안 산책로를 따라 투척될 예정이다. /여수=김진선 기자



## 광주보건대-광산구 ‘장자울 건강마을’ 협약

광주보건대학교는 “지난해 교육부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20) 2주기에 참여, 그 일환으로 광산구 수완동 장자울4단지울 건강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최근 대학·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보건대와 수완동 장자울 휴먼시아4단지 관리사무소,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산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완동건강생활지원센터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민의 건강 요구에 맞는 건강마을과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마을 주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해 다양한 교육 및 실습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건강 인프라를 구축,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다이어 기자

## 인사

- 광주여자대학교 ▲부총장 정성일 ▲입학홍보처장 오재연 ▲국제교류처장 김혜정 ▲산학협력단장 임귀자 ▲평생교육원장 손명동 ▲교양기초교육센터장 한중희 ▲교육성과관리센터장 조혜은 ▲외국인학생지원센터장 강신영 ▲홍보실장 최연준 ▲송강학숙관장 및 보건진료소장 유혜영
- ◇학과장 ▲경찰행정학과 박종렬 ▲유아교육과 김경란 ▲초등특수교육과 김영미 ▲간호학과 조인숙 ▲취위생학과 문상은 ▲보건행정학과 배상숙 ▲미용과학부 김선형 ▲화장품학과 민혜정